

2024. 5. 5. 오후 1 시, In-Person & YouTube Online

블랙스버그한인교회 주일예배

설교: 임동진

본문: 다니엘 Daniel 3:13-18

제목: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설교 35 분, 10 페이지, p9-18

(표준새번역) 3:13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ESV) 3:13 Then Nebuchadnezzar in furious rage commanded that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be brought. So they brought these men before the king.

3:14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3:14 Nebuchadnezzar answered and said to them, "Is it true, O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that you do not serve my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I have set up?"

3:15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3:15 Now if you are ready when you hear the sound of the horn, pipe, lyre, trigon, harp, bagpipe, and every kind of music, to fall down and worship the image that I have made, well and good. But if you do not worship, you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And who is the god who will deliver you out of my hands?"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3: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3:17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3:17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3: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3: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세상이 던지는 믿음의 압박

3:6 절,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하나님 나라 백성과 얼마나 다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1-7 절의 내용입니다.

(표준새번역) 3:6 누구든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즉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을 것이오."

(ESV) 3:6 And whoever does not fall down and worship shall immediately be cast into a burning fiery furnace."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시련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면 잘 참고, 견디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믿음의 타협이나 변질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남들 다해!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잖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셔야지! 이정도도 안 해 주시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가짜야!”**

세상의 이 메시지는 아주 파괴적이고,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닥쳐 올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의 대답

“남들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이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시간도
들여 봉사도 했는데, 헌금도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들시거든,

✓ 세상에 대답하십시오, “No!”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대답합니다. 16 절. 이 일에 대해서는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기회가 없어도, 누가 묻지 않아도 그들의 대답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3:16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3:16 Shadrach, Meshach, and Abednego answered and said to the king, "O Nebuchadnezzar, we have no need to answer you in this matter.

그들의 대답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No!

3:18b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3:18b ...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이것을 적용하면서 몇가지 추가적인 지침을 더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한다고,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No 라고 대답할 때,

◆ 성경을 근거로 삼으십시오.

No!라는 대답의 이유를 성경에 두십시오. 내가 싫어서 No 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No 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이며, 모두 아는 것이기에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이정도는 괜찮다고 속삭이는 세상을 향해, No 라고 대답할 때,

◆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No 라고 대답하실 때, 타협의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오해의 여지를 두지 마십시오.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No!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절은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남들 다 한다고 죄와 악이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선과 악은 투표로,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남들 다 한다고 죄가 괜찮은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성경이 아니면 우린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단호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No 라고 대답하실 때,

◆ 타인을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No 라고 대답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No 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할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두십시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낼 뿐입니다.

(예화)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은 2000 명이 넘고, 폐쇄되거나 불태워진 교회는 200 개가 넘고, 신사참배 거부로 순교한 사람은 50 명이 넘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No 라고 말했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광복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성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과 예수교 장로회 합동 교단이 분열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No 라고 말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세상의 압박에 대하여,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하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문구를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핵심 두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 (일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17 절.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바라며,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3:17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3:17 If this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burning fiery furnace, and he will deliver us out of your hand, O king.

18 절.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3:18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살펴 주십시오."

3:18 But if not, be it known to you, O king, that we will not serve your gods or worship the golden image that you have set up."

내가 고통을 만나고, 시련을 겪으면, 내 가족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병이 생기면 빠지고, 시험받고, 상처받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본래 그 믿음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일의 성취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를 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까?

‘믿음의 핵심’ 두 번째는,

◆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믿음’의 모양이 완성됩니다.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논밭에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롬 8:28, 이 바로 그 신앙 고백입니다.

(개역개정) 로마서 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NIV) Romans 8:28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눅 18 장의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압니다.

2 절. 그 재판관은 모든 면에서 나쁜놈입니다.

(표준새번역) 누가복음 18:2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ESV) Luke 18:2 He said, "In a certain city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respected man.

3 절. 그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일을 만나서 도와 달라고 매일같이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탄원합니다.

18:3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18:3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city who kept coming to him and saying, 'Give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4 절.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런 하찮은 일에는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18:4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18:4 For a while he refused, but afterward he said to himself, 'Though I neither fear God nor respect man,

5 절. 귀찮아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나쁜놈인데 자기 귀찮아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18:5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18:5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give her justice, so that she will not beat me down by her continual coming.'"

7 절. 이 세상의 악하고 교만한 재판장은 모른체하고 오래 내버려두고, 정의감이나 자비심도 아니고 자기 귀찮아서 응답하는 재판장 따위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의 이비유를 듣고

불의하고 나쁜 재판장 따위에게 간청하듯이 구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강청해야 한다고 가르치면 안됩니다.

누가복음 18:7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18:7 And will not God give justice to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delay
long over them?

이 비유는 1 절.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충분히 알고 나의 필요를 더 잘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18:1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18:1 And he told them a parable to the effect that they ought always to pray and not lose
heart.

그래서 8 절. 이렇게 비유가 마무리 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18:8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18:8 I tell you, he will give justice to them speedily.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함없이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향해 No 라고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서

- 내게 주시는 선물과 기도 응답보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생활하게 하소서
-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NO!'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게 하소서
-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소서

소그룹에서 나눌 질문들

(2024.5.5.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다니엘 3:13-18)

1.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남들 다해, 이 정도는 괜찮아” 혹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 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NO!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2.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성취, 결과, 은사 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5-6 을 이 관점으로 묵상하고 나누어 봅시다.
3. 당신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분이 좋으신 분, 선하신 분입니까?
4. 낙심하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을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합시다.